

문예소양 & 세계시민 역량 제고를 위한



제29기 해외역사문화탐방 베트남(하노이,하롱베이)





CONTENTS



01 여행의 시작

설렘을 안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다.

02 여행의 목적

학교 간 MOU로 민간 외교의 길까지

03 여행의 발자취

탐험과 모험이 선사하는 상쾌함

04 여행의 마무리

여기 추억과 바닷바람 그리고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

01

여행의 시작

설렘을 안고
새로운 인연을 만난다.

1. 호안끼엠 호수
2. 36거리 전동카 체험과 기차길
3. 여정의 꽃, 대면식



1일차 여행의 시작



지루한 일상 속 새로운 활력.
학교를 다니며 항상 참여하고 싶었던
해외역사문화탐방에 갈 수 있었다.

(앰배서더님의 정성으로 만든 미니 플래카드 ▶)

명절이 아닌 평일임에도 공항에는 여행객이
정말 많았다. 대한민국 여행 순위 2위는
허투가 아니었다.

베트남의 특징 중 하나는 차선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고, 차와 오토바이가 뒤섞여
차선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사이로 수천 대의 오토바이가 끼어들어 너무 위험해 보이지만, 그 누구도 불편해
하지 않고 익숙한 일인 듯 자연스레 통행이 이어진다.

곧이어 가이드님의 설명이 이어진다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그러려니~」”



1. 호안끼엠 호수



거북이가 전해준 검으로 나라를 일궈낸 발상지.
거북탑과 더불어 넓은 호수를 보니 산책이 절로
하고 싶어진다.

우리나라로 가정하면 만파식적 같은 존재가 아닐까?



2. 36거리 전동카 체험과 기차길



좁은 구시가지를 효율적으로
돌아다닐 수 있게 8인승으로 된
전동차로, 넓게 개방되어 있는 것이 특징.

구불구불하고 긴 골목길을 수월하게
다닐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

그러나 오토바이 사이로 매연을
담뿍 마실 수 있다는 건 아쉬운 점.
(그런데 비가 오면 돌아다닐 수 있나?)



TV에서만 보던 기차길 옆 상점가.
철로를 따라 쭉 늘어진 카페의 풍경이 정말 신기했다.
이곳의 침목은 나무로 된 한국과 달리 콘크리트 베이
스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
(우기가 있고 더운 지방이어서 나무가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는
탓일까?)

비록 기차가 지나가는 것은 보지 못했지만 아름다운
조명과 더불어 학우들과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
을 보냈다.
여유가 넘쳐 보이는 관광객들이 맥주 한 병씩 들고
앉아 있는 것이 포인트.



3. 여정의 꽃, 대면식

다양한 학과, 서로 다른 인생 이야기를 품고 있는 학우들과 자기소개하는 시간. 한평생 얼굴도 모르던 사람들이 서울사이버대학교 학생이라는 이름 아래에 서로 알게 되고, 한 두 다리 건너 인연이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 참 세상이 좁다는 것을 느꼈다. (이래서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한다. 어디서 누구를 만날지 모르니까.)

내가 편견을 갖고 있던 어떤 대상에 대해 누군가는 그 존재를 소중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는 내가 겪은 일과 유사한 경험을 가진 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다. 나를 덮고 있는 껍데기가 조금씩 깨부숴지며 인식의 폭이 넓어지는 순간.

해외탐방의 진정한 묘미는 바로 이 대면식이라고 생각한다.



02

여행의 목적

학교 간 MOU로
민간 외교의 길까지

1. PTIT대학 방문
2. 하롱베이를 향해
3. 야시장



2일차 여행의 목적

1. PTIT대학 방문



통역 학생을 두고 교수님·학생들 간 각자 학교 소개를 하고, ▶
향후 협력 관계를 도모해가는 현장 속에 우리가 함께하는 모습을 보며,
국제 교류의 저변이 넓어짐을 느꼈다.

문화는 곧 언어라는 말이 있다. 나도 타국의 언어를 제대로 연마한다면
통역없이 외교관처럼 일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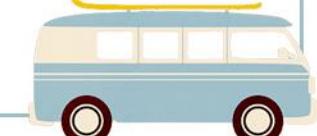
◀ 국립 우정통신대학교 PTIT. 베트남의 ICT 인재양성 거점으로
전자공학, 정보통신, 드론 분야의 핵심 교육기관.
서울사이버대학교와 국제교류로 MOU를 맺고 프로젝트를 진행중.
교수님·학생 간 협력 연구를 통해 양국의 인력 발전을 위해 노력 중.

많은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모습에서 한국의 폴리텍대학을
떠올렸다.



◀ 이곳은 오토바이가 많아도 너무 많고, 어린 친구들도 다 타고 다녀서
통역 학생에게 물어본 바로는 15~16세 정도만 되면 50cc미만의 오토바이를
탈 수 있고, 18세가 되면 대부분 면허를 취득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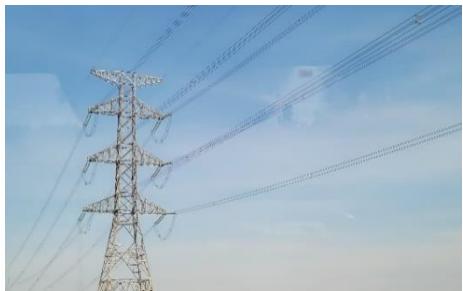
마치 옛 몽골인이 말 위에서 먹고 자듯이 이들은 오토바이 위에서 삶을
영위하는 것처럼 보였다.



2. 하롱베이를 향해

고속도로를 달려 동쪽으로 나아간 곳은 물이 많은 나라라는 이명을 가진 하롱베이.

가이드님의 열정적인 역사 수업을 들으며 지나친 것은 굽이치는 흥강과 드넓은 평야, 수많은 양식장, 또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중장비들까지.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이곳에서 항구 주변의 많은 덤프트럭과 굴삭기들이 이질적인 풍경을 자아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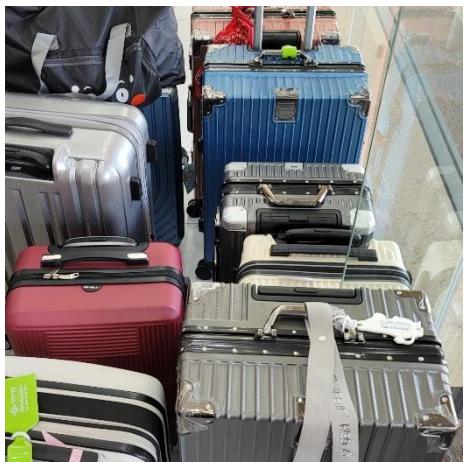


전기전자공학과로서 지나칠 수 없는 변압기들의 모습. (배전용 유입변압기 Điện áp 22kV/0.4kV ►)
타국의 전력망과 전력기기들의 모습을 보고 기록하는 것이 이번 탐방의 개인적인 소목표.

3. 야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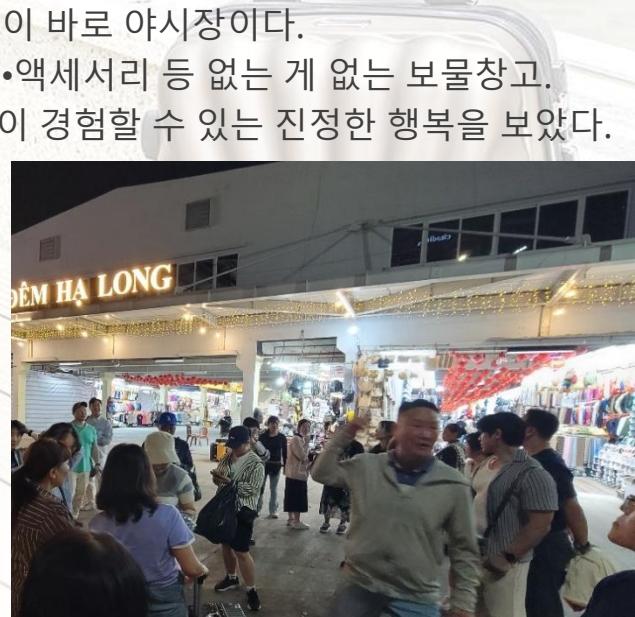


▲ 29기의 알파이자 오메가. 이 보고서의 배경이 왜 캐리어인가. 그 답이 바로 야시장이다.
낮에 다녀온 과일 시장을 뒤로한 채 달려간 하이라이트. 옷•신발•가방•액세서리 등 없는 게 없는 보물창고.
흥정을 할 수 있는 이 곳에서 모든 학우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을 보았다.



◀ 위풍당당한 승자들의 전리품
(사진에 안보이는 보물이 더 많을지도?)

『누군가 한국인의 활력을 묻거든,
고개를 들어 야시장을 보게 하라.』



03

여행의 발자취

탐험과 모험이
선사하는 상쾌함

1. 하롱베이 유람선
2. 비경 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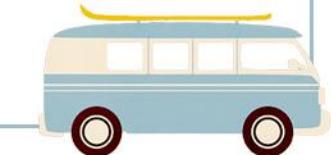


3일차 여행의 발자취

1. 하롱베이 유람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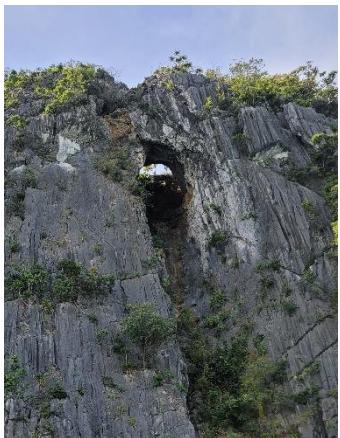
옥색의 물과 수리가 지배하는 파도가 일지 않는 바다. 저 멀리 세계자연유산이 그리는 산수화를 감상하며 일상 속 여유를 느낄 수 있었다. 갑판에서 바라보는 키스바위는 바람과 파도가 오랜 세월에 거쳐 빚어낸 환상의 하모니.



2. 비경 체험



푸른 안광을 빛내며 고고히 잠들어있는 지하 동굴. 판타지 세계관의 드래곤 둑지와 던전을 떠올리는 건 나뿐만이 아니었다. 노를 저어 쪽배를 타고 해식동굴을 지나니 자연침식으로 만들어진 숨겨진 비경이 드러났다. (해적의 본거지같아 보이는 이곳엔 원숭이가 살고 있는데 정말일까?)



스피드보트로 드넓은 바다를 짜릿하게 달려 하롱의 유래가 된 승천동굴을 보고, 또 좁은 선착장으로 범퍼카처럼 비집고 들어가는 유람선을 보면서 이들은 배도 오토바이처럼 다루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깎아지른듯한 수백 개의 계단을 오르고 맞이한 하롱베이 전망대. 빼곡히 들어찬 관광객들 속에서 좋은 자리를 발견하고 사진을 찍는 의지의 한국인들이 존경스럽다.

04

여행의 마무리

여기 추억과 바닷바람
그리고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을

1. 호아로 수용소 & 바딘 광장
2. 한기동 사원 & 호치민 생활관
3. 문묘
4. 여정의 끝, 교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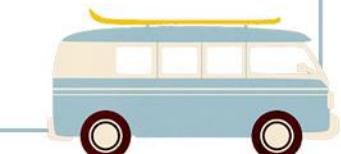
4일차 여행의 마무리

해외에서 꼭 해보고 싶었던 모닝런. 정말 좋은 사람들과 번개로 만나 버킷리스트를 이뤘다. 새벽을 깨우는 부지런한 아침 러너들. 해변까지 걷고 뛰며 지난밤의 숙취(?)도 날려버린다.

(청계천 형이 여길 어찌 계시오?)▼



현지 분들이 많이 찾던 분짜 맛집. 이번 여행에서 가히 손에 꼽는 최고의 맛과 향기. 맑은 날씨에 운동도 하고 새로운 음식도 먹는 것이 바로 여행의 낭만이 아닐까?



1. 호아로 수용소 & 바딘 광장

프랑스의 식민지배를 받던 베트남.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던 한국.▶

먼 나라에서 유사한 일이 벌어졌다는 게 두 나라의 공통점 중 하나.
한국의 서대문형무소와 유사한 수감 시설로서 독립운동가들의 아픈 역사가 서린 곳.



▲호치민 주석의 묘와 국회의사당이 있는 거대한 광장.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해서 입장 시 검문 검색을 하고, 단체 깃발 세우기도 금지.
가이드님에 따르면 베트남의 건물 외부에서는 종교행사를 할 수 없기에 플래카드가
종교적 의미로 보여질 수 있다고 한다. 문화 차이를 볼 수 있는 생소한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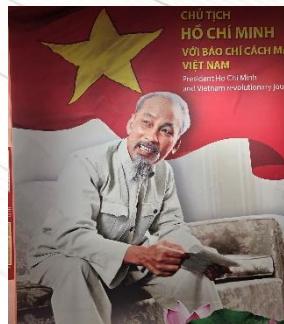


2. 한기동 사원 & 호치민 생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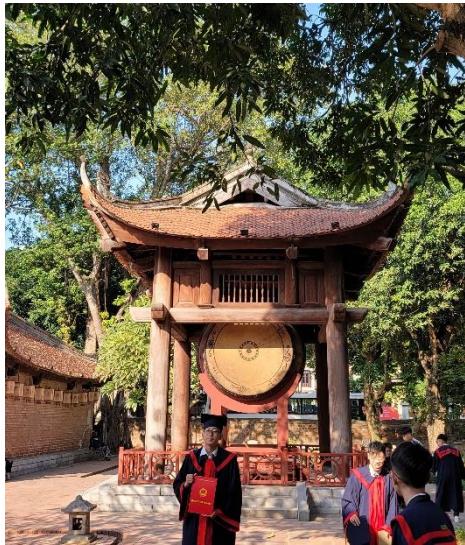
연못 위 수련 사이로 굳건히 서있는 하나의 기둥과 튼튼한 전각. ▶
전설에 따라 다산과 풍요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다.
모든 것은 하늘의 뜻. 나도 작은 소원을 빌어본다.



◀청렴과 검소의 대명사. 마치 마하트마 간디 선생님이 생각나듯 베트남을 일궈낸 국부. 인간으로서 본인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신념을 위해 일한다는 것은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렵다. 타이어 샌들은 그의 성정을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 '한국의 위정자들이 이 분의 정신을 조금이라도 배워야할텐데' 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3. 문묘



학업과 성취를 원하는 이들이 기원을 비는 공자를 모신 사당. ▲
수 많은 학생들이 이곳에서 졸업식을 하거나, 각종 시험에 합격하고자 하는
간절한 사람들이 찾는 곳. 전통의상인 흰 아오자이를 입은 중학생들이
졸업사진을 촬영하고 있었다. 순수하고 젊은 그대들이 부럽다.

4. 여정의 끝, 교류회



긴 여정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밤 교류회. ▶
함께 웃고 즐기던 학우들과 헤어지는
이 순간은 너무도 아쉽고 고되다.

이렇게 귀한 분들과 이런 소중한 시간이
내게 다시 찾아올 수 있을까.

무한의 우연이 겹쳐 인연이 되고,
필연으로 완성됨을 믿는다.

가슴 따뜻해지는 기억을 반추하며
보고서를 마친다.



서울사이버대와 함께한 최고의 추억

혹자는 얘기한다. "그 나라의 문화를 알려면 직접 가서 경험해 보는 것 뿐이다."

나와는 상관없는 타국이라고 치부하지 않고, 그들의 삶과 전통 그리고 언어와 음식을 보고 느끼면서 글로벌한 인재로 거듭날 수 있었다.

또한 단순히 가상으로만 만날 수 있던 학교의 여러 학우들을 직접 만나서 그들의 다양한 인생을 듣고 공감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나의 이야기도 나누면서 좀 더 풍부한 관계를 맺는 계기가 되었다.

이토록 빛나는 추억을 선물해 준 서울사이버대학교와 많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을 올린다. 앞으로는 더 많은 학우들이 더 많은 나라에서 해외역사문화탐방을 하여 행복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